

Global Goings-on

* 주요국의 보건복지 정책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 정리한 글임.

How Closely is the Distribution of Skills Related to Countries' Overall Level of Social Inequality and Economic Prosperity?

▮ OECD, 105p, 2014.
DOI 10.1787/5jxvd5rk3tnx-en

한 나라의 인적자본 수준 - 그 나라 인구의 지식과 기술 수준 - 은 그 나라 성장과 번영을 위한 경제적 잠재력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반면, 사회 불평등은 그러한 번영이 인구 전체에 공정한 방법으로 고르게 공유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숫자를 다루는 기술의 인구 내 분포와 경제적 번영 척도(1인당 GDP), 사회 불평등(지니 계수)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다양한 기술 분포 척도와 경제번영척도, 사회불평등척도 간의 나라별 상관관계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관관계들을 검토해 본 결과 숫자를 다루는 기술의 분포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 불평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나라 인구 내 기술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회 불평등 척도가 높게 나타나고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경제 생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mployment and Skills Strategies in Korea

▮ OECD, 84p, 2014, ISBN 9789264216563

인적자원과 기술의 경제적 중요성이 부상되면서 고용 및 직업훈련 기관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지역전략에서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OECD 지역경제고용개발 프로그램(LEED)은 지역노동시장정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미치는 기여에 대한 국제적 비교연구를 개발했다. 본 보고서는 부천과 부산 지역의 지역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에서 고용과 기술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 및 기구들을 살펴보았다.

Ethnic Density Effects on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Latino Ethnic Groups

▮ Laia Becares, 2014, *Health & Place*, 30(2014), pp.177-186.

본 연구는 라틴 아메리카계열 그룹(US Latinos) 중에서 민족의 밀집 정도가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몇 가지 가설경로를 통해 밝히고 있다. 그동안 라틴 아메리카계열 민족에 대한 연구는 민족의 밀집도 효과에 대해 일관된 증거들을 제공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연구에서는 멕시코계열의 미국인(Mexican Americans)에 초점을 두어왔다는 점에서 라틴계열 하부 그룹(Latino sub-groups)과 세대적 상태(generational status)에 따라 민족의 밀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는 어떻게 다르게 측정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착안하여 국가적으로 라틴계열 사람들(National Latino)로부터 라틴 사람들(Latino)의 샘플과 아시아계 미국인(Asian-American)을 추출하여 이를 분석, 접근하는 다중 그룹의 구조방정식 모델(a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 간의 응집력이 증가하고 대인관계에서의 인종차별주의에의 노출된다는 두 가지 가설화된 메커니즘을 탐구한다. 민족의 밀도 효과와 가설화된 메커니즘 사이의 주된 영향의 결과는 라틴계열 민족 전역에 걸친 극명한 차이점과 세대 범주, 그리고 민족 밀도의 측정을 보여준다. 연구결과는 민족 밀도 효과와 그들의 메커니즘이 라틴 하위그룹의 이주의 이유, 미국에 이주한 이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현재와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구의 결론에서 흥미로운 점은, 비록 개념적 모형(conceptual model)의 측정이 라틴계열 하부그룹(Latino sub-groups)에 걸쳐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몇몇 구조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계열 그룹(US Latinos)은 이주의 이

유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오고가는 이동의 자유와 그들이 현재 누리는 권리와 관련해서도 완전히 다른, 여러 다른 종류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큰 그룹이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으로서 Puerto Ricans는 이 연구에서 조사된 라틴계열하부그룹(Latino sub-groups) 중에서도 최소한의 법적 장벽을 경험한다. 그러나 미국 시민이 됨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Puerto Rican 이민자들은 대량 실업과 복지에 의해 지원받고자 하는 이유로 이주해 왔다는 대중의 인식 때문에 오히려 더 차별을 경험하게 되었고, 다른 라틴계열 하부그룹(Latino sub-ethnic groups) 보다 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Central and Latin American Countries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인종차별주의와 낙인효과로 인해 더 크게 고통받았었다. 이러한 경험들이 그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면서 최악의 건강상태를 가져다주었고 다른 라틴계열 민족보다 더 높은 비율의 심리적 장애상태를 나타내었다. 그 밖에 멕시코계의 이주자, 쿠비의 이주자 등 역사적 배경 등에 따라 라틴계열 하부그룹 간의 구조적인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제시된 것은 우선, NLAAS의 횡단 연구 설계(cross-sectional design) 때문에 인과관계의 방향과 내생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이 연구를 위해 이용가능한 민족 밀집도의 수준이 자치주(county) 단위라는 것이다. 미국에 속한 자치주의 경우 140명에서 9천만 이상의 거주자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와 범주가 매우 다양하다. 지리적 특성을 어떻게 고려하느냐에 따라 민족 밀도 수준이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지역, 국가 수준 등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밖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경로에 의한 분석에 그치나 민족의 밀집도 효과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경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The Effect of Private High School Education on the College Trajectory

■ Conor Coughlin & Carolina Castilla, 2014.
Economic Letters, 125(2014), pp.200-203.

사립고등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학적으로 여전히 논쟁이 되는 이슈이다. 몇몇 보고서에서는 카톨릭 고등학교(미국에서 가장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에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입학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제시하고 있다(EVans and Schwab, 1995, Sander and Krautmann, 1995, Snder and Krautmann, 1995, Neal, 1997, Altonjiet al., 2005(AET)). 한편, 기존연구 중에는 이와 대조적인 의견이 있는데, Filglio and Stone(1999)은 테스트 점수에 카톨릭학교가 미치는 영향은 오직 소수의 학생들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사립 고등교육이 미국 학생들의 평균적인 대학 궤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종적연구 방법(the Nationa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NELS)을 사용하여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의 대학 등록과 학위 취득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최근의 NELS 조사를 통

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 학위 취득에 대한 사립학교 교육 효과의 첫 번째 추정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결과 사립학교 교육이 대학 입학 및 학위 취득에 유의하고,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한다.

데이터는 the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NCES)에 등록되어 있는 NELS를 사용하는데, 이는 종적연구에 근거한 설문지로서 기준연도인 1988년에 이어 1990, 1992, 1994, 2000에 수행되었다. 그 중 대학 입학과 졸업에 대한 데이터를 얻고자 1994년과 2000년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표본에 제약을 가한다. 한 예로, 사립학교 선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선택(편의 발생을 야기하는 잠재변수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립 중학교 8학년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로만(단일 학년으로만) 표본을 구성했다. 또한 사립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도구로 학생들의 중학교 기간의 변화를 최대한 잘 활용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사립교육은 학위를 취득하는 가능성을 더 높이고 전문적인 인력시장에 빨리 진입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립교육으로 인한 이득이 평생소득의 형태로 구체화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Adolescent Health and Adult Labor Market Outcomes

■ Petter Lundbord, Anton Nilsson & Dan-Olof Rooth, *Journal of Health Economics*, 37(Sep, 2014), pp.25-40.

본 논문은 청소년 시절의 건강이 성년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여러 이론적 근거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없음을 지적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어린 시절에 건강한 것은 학습과 생활, 인간관계 측면에서 더욱 원활함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직장 생활을 하는 성년의 시기에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자들에게 의하면 이러한 내용은 Curie(2009), Almond and Curie(2011) 등과 같은 선행연구에서 학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성년의 결과물은 어린 시절의 건강과 큰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대개 건강하지 못한 이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가정, 즉,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유년시절과 청소년시절의 건강을 이해함에 있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세대를 따라 이어지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언급된 청소년 시절의 건강과 성년의 사회경제적 성취와의 정(+)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50~1970년 사이에 태어난 스웨덴 남성 인구를 거의 다 아우르는 대표본 자료를 구축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즉 양적 측면에서 본 데이터는 그 거대함을 특성으로 삼을 수 있는데, 분석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석대상의 18세 시절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에서 구득된 엄청난 건강측정 결과와 기록부에서 발췌한 수입과 같은 노동시장 결과물(경제적 성과물)과 같은 정보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변수의 구성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성년 시절) 연간 소득의 로그값을 적용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성년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성취(물)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독립변수로 건강 상태의 여러 다른 범주로 구성된 전체적 건강상태를 먼저 투입하였다. 또한 세부적인 병의 유무를 이항(binary)으로 구성하여 이를 함께 고려함과 동시에 인지, 비인지 능력과 학력, 직업, 혼인 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투입하였다. 특히 형제나 쌍둥이의 경우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형제(혹은 쌍둥이) 고정효과 변수를 투입하였다는 점은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한 특징임과 동시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데이터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자. 이는 크게 전반적인 건강상태(global health), 형제/쌍둥이 고정효과, 기타 특정 건강상태(병의 유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저자들이 “18세 시절의 전반적인 건강상태(global health)는 성년의 경제적 성과를 강력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자. 이는 본 논문의 종합적 결과를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 추정결과에 따르면 10단계로 나누어진 좋지 않은 건강 상태(bad health)가 한 단계 증가할 때마다 경제적 성과의 25%가 감소한다. 또한 형제고정효과와 쌍둥이 고정효과와 같은 경우 30% 가량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관찰되지 않은 요인이 중요함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건강과 성과 간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형제 뿐 아니라 쌍둥이를 일란

성, 이란성으로 구분하여 고정효과를 고려한 결과 도 앞서 살펴본 형제 고정효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 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질환의 경우, 비록 모든 질환이 전부 경제적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 는 않았지만 영양/기초대사량 부족, 정신적 건강 이상, 신경계 이상, 감각신경계 이상, 소화계 이상, 비뇨-생식기능 이상 등의 많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추가적으로 학력과 인지 능력, 비인지능력을 투입한 결과 이들 변수는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침과 아울러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분석결과의 핵심적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면, 먼저(유년 시절의) 주요 건강 상태는 장기적으로 미래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신적 건강 상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형제 나 쌍둥이의 경우 고정효과를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 영향력 추정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래도 여전히 영향력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스웨덴을 공간적 범위로 하여 1950~1970년에 태어난 거의 모든 남성을 표본으로 하여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The Wealth, Health and Well-being of Ireland's Older People Before and During the Economic Crisis

■ A. Barrett & V. O'sullivan, 2014. *Applied Economics Letters*, 21(10), pp.675-678.

저자들은 2008~2009년 불어 닥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큰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아일랜드도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곳보다 더욱 가혹하였다고 언급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주어진 가운데, 경제적, 물질적 측면의 붕괴와 건강과 삶의 만족도와 같은 변수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한편, 경제적 침체와 주관적 삶의 만족도/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일관된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즉, 이는 다음과 같이 경제적 풍요로움(economic prosperity)과 건강이 경기 역행적(counter-cyclical)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Ruhm 2000), 최근 거시경제적 상황과 건강과의 관계는 뚜렷하지 않고 모호하다는 연구결과(Tekin et al, 2013; Ruhm, 2013),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경기는 매우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Deaton, 2012)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경제적 상태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하기 위해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출하였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인 2006~2007, 2009~2011, 2012~2013의 기간 동안의 경기에 따라 가

구의 자산과 부채, 소유 주택 및 자동차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경제위기 이후 이러한 가구의 부를 나타내는 변수들은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다시 경제위기 이전으로 회복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삶의 질을 나타내는 casp-12 점수(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는 동 분석기간 동안 아주 미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관적 건강상태 역시 향상 혹은 악화 등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에 따르면 최근 경제적 경기 침체에 따라 아일랜드의 노인들은 가구 소득의 큰 감소를 경험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평균적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으로 측정된 건강상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서두에서 언급한 미국의 주요 연구(Tekin et al, 2013; Ruhm, 2013)와 아일랜드의 연구(Walsh, 2011) 결과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래 본 저널에서는 일반적으로 논문의 분량이 짧은 특성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분석의 틀과 분석 대상의 연령 범위, 변수의 적용 근거 등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하겠다. 아울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방법론의 선택에 있어 조금 더 명확하였다면 더 나은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등과 같은 종속변수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며, 대개 리커트형(likert scale) 척도 변수로 구성되므로 이를 적절하기 위한 순서형 로지스틱 / 프로빗 모형의 적용도 고려해 볼 직하다는 것이다.

- 편역 | 라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원)
- 손지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